대불청 전북지구회장 장석희 회장 취임

10월 3일 전북불교회관서
이·취임식…100여 명 참석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 이·취임식이 10월 3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 법당서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 이·취임식이 10월 3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은 전임 김성규 회장의 이임사, 장석희 신임회장의 취임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장석희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는 10월 29일과 30일 금산사에서 개최되는 대불청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청년회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사부대중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청년회가 전북지역 불교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전임회장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시정활동과 청년회장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웠다"며 "신임 장석희 회장에게 중책을 떠맡긴 듯 해서 죄송하고 임기 중 성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청년회원들의 활동으로 지역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가 세계로 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불청 대회 성공적 개최가 최우선 과제'

인터뷰 **장석희 대불청 전북지구 신임회장**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적으로 10월 29일과 30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리는 대불청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청년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지난 10월 3일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에 취임한 장석희 회장의 취임일성이다. 전임 김성규 회장의 전주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사임으로 회장으로 취임한 장석희 회장은 최우선 과제로 금산사 대불청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꼽았다.

"장기적인 과제로 전북지구 청년회의 조직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종교인구의 감소와 불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청년회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지회를 재창립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전북지역 청년회 9개 지회가 6개로 축소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청년회 조직을 재건하고 활성화하는 목표를 임기 중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무엇보다 전북지역 불교공동체의 대중화합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다소 소원해진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장 회장은 청년회가 승가와 재가불자들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선배불자들과 젊은 불자들간의 소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중 청년회원의 수를 늘려 예전 전북지구의 화려한 부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불교신도회는 9월 29일 울산 예술문화회관에서 울산불교연합회 합창축제를 개최했다.

제26회 울산광역시불교聯 합창제 봉행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병호)는 9월 29일 울산 예술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울산불교연합회 사찰 합창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황룡사 어린이합창단 특별출연을 시작으로 지장정사 관음조합창단, 정토사 어울림합창단, 백양사 삼보합창단, 백련사 향기소리합창단, BBS 울산불교방송합창단, 조계종울산사암연합합창단, 월봉사 월광합창단, 마야합창단이 출연했다.

공연 이후에는 이병호 울산불교연합회 회장 인사, 울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격려사,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 인사, 박성민 국회의원 인사, 최서희, 박상민 가수 등 공연,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합창축제에는 백양사 산옹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신흥사 종현 스님, 석남사 일영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이병호 신도회장, 김인선 불교여성회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합창제를 통하여 불교음악의 발전과 더불어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운사 승려복지기금 전달식 개최



안동 대원사 주지 도륜 스님과 의성 대곡사 주지 혜산 스님은 9월 29일 고운사를 방문해 주지 등운 스님에게 고운사 승려복지기금 1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사진〉

이에 앞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제16교구 소속 후보는 선거공영제 의미로 고운사 승려복지회에 승려복지 후원금을 기탁하기로 교구종회서 결의했다. 이번 복지기금 전달은 고운사 교구종회에서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에 출마하는 스님들이 선거 공영제의 의미로 선거비용을 대신해 승려복지기금을 후원하셨다. 고운사 재적 대중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도륜 스님과 혜산 스님은 "앞으로 교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기금전달의 소감을 표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울산 서장사, 석가모니불 점안식 봉행

10월 2일 봉안, 한달간 개금불사 회향 의미

울산 천마산 서장사(주지 불성)는 10월 2일 서장사 대웅전에서 석가모니불, 문수, 보현 보살상 삼존불, 아미타래영도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개회사, 주지 불성 스님 인사, 내빈 소개, 삼귀의례, 차공양, 점안식 의식, 상단불공, 보현행자, 춤바라지, 회주 스님 공양올리기, 회주 진옥 스님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점안식에는 서장사 회주 진옥 스님, 주지 불성 스님, 벽선암 무종 스님 등 대중스님, 여수 및 울산지역 불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불성 스님은 "부처님의 모습을 뵙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불·법·승의 청정하고 심오한 뜻이 깃들길 바란다"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모든 인연으로 얻어진 것이기에 모두에게 회향되어져야 한다"고 서원했다.

증명법사 진옥 스님은 법문에서 "개금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는 그 대상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 생각에 따라 대상이 있다고 하면 중생"이라며 "부처의 마음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 분별심 없이 무차행을 하면 극락세계"라고 강조했다.

개금불사 기도는 9월 4일 입재 이후 9월 18일 개금불사가 시작됐다. 서장사 회주 진옥 스님을 증명으로 정병국 경주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 등이 개금을 진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 제558회 사명대사 추계향사

10월 1일 표충사 사명대사 사당서 봉행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는 10월 1일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사당에서 제558회 추계향사를 봉행했다.〈사진〉

향사는 개회, 명종5타,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 종사열반(불교제향), 행장기, 헌다, 헌향, 헌화, 석전의례(유교제향), 내외빈소개, 원산 스님 추모사, 밀양시장인사, 진각 스님 봉행사, 사홍서원, 회향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前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용궁사 정무 스님, 무봉사 천주 스님, 삼양사 지설혜 스님, 밀양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박일호 밀양시장,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 이원효 성균관밀양시지부회장, 김명교 밀양향교전교, 경남포교사단 밀양지부 지역단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통도사 前주지 원산 스님은 추모사에서 "국가의 존위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옛 일본의 침략을 상기시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고 발원했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표충사가 호국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 원당암, 영가 합동천도법회 눈길

해인사 원당암이 10월 4일 중양절을 맞아 '선망 선대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천도법회는 9일 기도 회향을 맞아 경내 보광전과 만년위패가 모셔진 원당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법사로 모신 가운데 봉행됐다. 보광전에서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과 관욕, 상단헌공, 봉송 등으로 이어져 인연있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도륜 스님, 안동시장애인복지관장 취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월 4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복지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도륜 스님의 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신임 관장으로 취임한 도륜 스님은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고운청소년재단 이사, 경북불교문화원 이사, 제16교구 본사 총무국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며 "복지전달 체계에 맞추어 장애인들에게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복지관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고창군복지관, '세대공감 나눔바자회' 진행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은 10월 7일 흥덕문화복지관에서 흥덕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지역어르신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세대공감 나눔바자회'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세대공감 나눔바자회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흥덕문화복지관과 고창북고등학교는 상호 협력 체제 확립 및 지역사회 공동체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바자회에는 흥덕면 어르신 15명과 청소년 107명이 참여하여 실수세미와 천연비누 등을 준비했다.

이날 마련된 물품은 흥덕면주민자치위원회와 흥덕문화복지관이 함께 주관하여 '세대공감 나눔바자회'를 통해 판매됐다. 후원금은 흥덕면 소외된 이웃에게 난방용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 대성사 창립55주년 기념법회 열어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원)는 10월 1일 경내 서원당 3층에서 창립 5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연혁보고, 개식사, 법어, 축사, 관음정진 및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조현대 신도회장은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100주년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성사 주지 도원 스님은 "55주년 기념법회는 미래불교 100년을 내다보는 거룩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법회가 내실있고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성사는 특별행사로 주지 도원 스님이 지난해 다섯 쌍둥이 출산으로 화제가 된 김진수, 서혜정 부부에게 육아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